

## <토론문>

### 조원갑 (충남도청 정책기획관)

#### ■ 우리도 국제교류 현황

##### □ 對 중국, 일본, 동남아지역 교류현황

- 현재 4개국 17개 단체와 교류협력 체결, 1,172회 교류
- \* 2014년 말 13개국, 27개 단체, 1,350여회 상호 방문교류
- ☞ 지휘부 상호 방문, 국제행사 참가, 경제교류, 문화, 관광, 체육 교류, 농수산물 교류, 행정시책 교류, 청소년 교류 등

#### <교류협력 체결 현황>

구 분	자 치 단 체
자매결연(3)	중국(2):허베이성, 헤이룽장성, 일본:구마모토현
우호협력(14)	중국(10):산둥성, 옌벤주, 지린성, 장쑤성, 쓰촨성 상하이시, 랴오닝성, 윈난성, 칭하이성, 구이저우성 일본(2):나라현, 시즈오카현, 베트남:통안성 캄보디아:시엠티주

- 국제기구 NEAR(동북아 자치단체 연합) 가입 활동 중
- 6개국(한국, 중국, 러시아, 일본, 북한, 몽골) 70개 자치단체

##### □ 對 중국, 일본, 동남아 지역 수출 현황

- 2014년말 우리도 20대 국가별 수출 중 493억\$(전체651억\$의 76%)차지
- \* 對 중국 수출은 290억\$(전체 수출액 651억\$의 44.6% 차지)

##### → ① 아직까지는 행정 분야의 신뢰유지 교류에 비중이 많음

- 행정의 신뢰교류를 바탕으로 문화예술, 교육, 청소년, 경제, 농업분야 교류의 저변 확대 필요

##### ② 도와 15개 시·군 간 연계 협력하는 교류활동 미흡

- 도의 노하우와 정보 공유 및 지원으로 교류 시너지 효과 추진 필요

##### ③ 교류지역의 정책변동에 대한 탄력적 대응 교류 미흡

- 연구기관의 정책 실증분석 자료, 정책동향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상생 교류발전 모색

#### ■ 한·중 FTA 관련

##### □ 중국과의 FTA를 통해(한·중 FTA 정식서명 2015.6.1.)

- 한·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① 실질 GDP는 0.96% 추가성장하고 ②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③ 고용은 53,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남.

#### < 한·중 FTA의 거시경제 효과 >

구분	5년	10년
실질 GDP(%)	0.30	0.96
소비자 후생(억불)	56.34	146.26
고용효과(천개)	13.6	53.8
재정효과(조원)(연평균)	△ 0.17	0.27

자료 : 대외경제연구원 등의 “한중 FTA 영향평가”(산업통상자원부, 2015. 6. 1. 한중 FTA 정식서명 보도자료)

##### □ 중국의 경우 한·중·일 FTA를 대비해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

- '11년에 국가급 프로젝트인 「산둥반도 남색경제지역 발전규획」을 비준하고, '12년에 산둥성에 한중일 '지방경제 협력시범구' 조성을 언급해 현재 산둥성 정부의 비준으로 조성되고 있음
- 칭다오시는 서해안신구에 '한·중자유 무역 합작지구'를 조성중에 있고, 한국과 가장 가까운 웨이하이시도 '한·중자유 무역지구'를 조성할 계획임

##### □ 충남도는 서산~천안·아산을 잇는 국가기간 산업의 최대 집적과 중국과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을 활용한 아산만권 아시아투자 산업 지역 조성 방안 적극 모색

- \*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아시아 투자산업단지로 전환 등

##### → 중국동향, 특히 충남과 인접한 지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한·중 FTA 기회를 잘 활용 할 계획 임

## ■ 환황해 프로젝트 구상관련

- 충남도는 황해를‘아시아의 지중해’로 만들어 나가는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고자 환황해 프로젝트를 구상 중에 있으며,

- 3개 전략 13개 과제 : 단계별 추진

추진과제(6개전략, 13개 과제)		비 고
◆ 인적네트워크 구축	① 국가별 전문가 POOL 구성 ② 국가별 현안 대응체계 구축	
◆ 교통·물류 인프라 확충	③ 항만·도로·철도·공항 확충 ④ 국제 항로 개설	
◆ 산업별 해외교역 증진	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⑥ 해외 틈새시장 개척	
◆ 분야별 국제교류 강화	⑦ 아시아 협의회 구성·운영 ⑧ 對중국 교류전략 수립	
◆ 매력있는 투자여건 조성	⑨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정비 ⑩ 충남브랜드 가치 제고	
◆ 특화된 관광마케팅 전략수립	⑪ 해외 현지 투자유치센터 운영 ⑫ 충남 관광 마케팅 전략수립	
	⑬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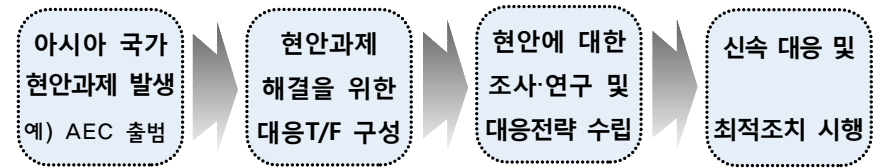
- 對 중국, 일본, 동남아 지역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과제 선정하여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단 운영, 연구실무단 운영, 국제포럼 개최, 주민 및 전문가를 참여하여 공감대 형성 및 새로운 정책을 발굴코자 함.

### ① 국가별 전문가 POOL 구축

- 중국과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별 전문가 DB 구축
  - 공공·민간영역에 걸쳐 분야별 영향력 있는 인사 영입,
  - 주한 인력, 언론 특파원, 해외 교포 활용한 네트워크 구성
- 국가별·분야별 전문가 활용방안
  - 각종 간담회, 워크숍, 포럼 등 개최 시 참여, 의견 개진
  - 「전문가 포럼」을 구성,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對정부 설득 및 아시아 전체의 여론 형성에 영향력 행사
  -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 및 정책 추진

### ② 국가별 현안 대응체계 구축

-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별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
  - 지역현황, 정치·경제동향, 발전·투자전략 등 조사·연구
- 운영방안 : 「환황해프로젝트 추진단」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, 현안 발생 시, 신속한 대응조치 이행
- 현안 대응 흐름도



→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국가별 주요현안에 기민하게 대처

### ③ 항만·도로·철도·공항 확충

- 교통 인프라 확충
  - 항만 : 3대 특화항만 육성(당진항, 대산항, 보령신항)
  - 마리나항만 개발(창리, 왜목, 보령, 오천, 석문, 남당 모항 등)
  - 고속도로 : 대산~당진, 당진~천안, 평택~부여, 보령~울진
  - 국도 : 신평~내항, 대산~가곡, 원청~태안, 보령~청양 등
  - 철도 : 대산항·당진항 인입철도, 서해선, 장항선, 충청선
  - 공항 : 서산비행장 민항기 취항, 부남호 수상 경비행장 등
- 물류 인프라 확충
  - 5대 무역항(당진항, 대산항, 태안항, 보령항, 장항항) 주변 물류단지 확충
  - 항만 배후단지 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 모색
  - 교통·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「아시아 경제의 중심」 조성

### ④ 국제 항로 개설

- 국제 항공 항로
  - 서산 해미 ↔ 중국(상하이, 베이징, 옌타이 등), 동남아(베트남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태국, 말레이시아, 인도 등) 직항항로 개설 추진
- 국제 해운 항로

- 크루즈항 : 동남아 ↔ 중국 ↔ 대산항 ↔ 일본 연계  
(장기적) 보령신항을 기항지로 머드축제, 해저터널, 아울렛매장과 연계한 관광 벨트 조성
- 컨테이너항 : 대산항↔중국↔베트남↔태국↔인도네시아 등 연계  
→ 국제교통망 확대를 통한 「新 해상실크로드」 연계방안 마련

## 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

- 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지원시스템 개선
  - 아시아(중국)를 시장으로 하는 중소기업체 간담회 개최  
→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애로·불편사항 해소
  - 기술·금융·세제 등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일원화  
→ 「One-Stop 지원체제」를 구축, 체계적인 지원 강화
- ☐ R&D투자 확대와 기술사업화를 통한 해외경쟁력 확보
  - 중소기업 R&D투자 및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강화  
→ 도내 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해외교역 확대

## ⑥ 해외시장 개척

- ☐ 기술혁신과 마케팅 활동을 통한 신규 해외시장 개척
  -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지원으로 기업의 독자적 경쟁력 확보 강화
  - 지속적인 해외고객 수요 연구를 통해 틈새시장 발굴
  - 중소기업 전문업종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
  - 농수산물물의 고품격 상품개발, 품질의 고급화로 생산·수출 증대
- ☐ 동남아, 중국 내륙지역 등 미개척시장에 대한 판로 확대
  - 미개척시장의 해외민간 네트워크를 활용, 다양한 지역의 시장정보를 수집·제공,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
→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도내 기업의 수출기회 확대

## ⑦ 「아시아 협의회」 구성·운영

- ☐ 충남과 교류를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자치단체를 망라,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국제협의체로 육성(민간영역도 포함)
  - 현재 아시아에서 도와 교류를 맺고 있는 자치단체를 활용, 아시아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회의를 구성, 정기모임 개최

- 그 산하에 각 국가별로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  
→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충남이 선도적 역할 수행

<b>아시아 지자체별 교류·협력 현황</b>	<b>○ 총 17개 지자체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매결연(3개) : 중국 허베이성, 헤이룽장성, 일본 구마모토현</li> <li>- 우호협력(14개) : 중국 산둥성, 엔벤주, 지린성, 장쑤성, 쓰촨성, 상하이시, 랴오닝성, 윈난성, 칭하이성, 구이저우성, 일본 나라현, 시즈오카현, 베트남 롱안성, 캄보디아 씨엠립주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※ 북한지역 참여방안 별도 검토

## ⑧ 對중국 교류전략 수립

- ☐ 중국 교류단체별 진단 및 중점 교류 분야 정립
  - 중국 12개 교류 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점 분야 정립
  -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한 교류사업 추진
- ☐ 참여와 협치의 교류 활성화
  - 도, 시·군 교류협의체 구성 추진, 도단위 기관 합동 교류사업 추진
  - 민간분야 교류 장려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 지원
  - 장기적으로 (가칭)충청남도국제교류재단 설립 방안 검토  
→ 맞춤형 교류, 참여 협치를 통한 교류 확대

## ⑨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정비

- ☐ 외국기업 이전 및 외국자본 직접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  - 보조금 : 신규고용창출,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제도 확대 등
  - 감면세 : 취득세·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 강화 등
- ☐ 기존의 외투기업 애로사항 해결로 증액투자 유인  
→ 중국 및 동남아 거대 기업·자본의 對충남 투자 유인

## ⑩ 충남 브랜드 가치제고

- ☐ 충남의 심벌마크, 마스코트, 월드브랜드 등을 활용  
「충남 = 신뢰」라는 고품격 이미지 구축
  - 충남의 자랑거리, 발전 잠재력, 역사문화관광자원, 세계 1등 상품, 한류, 충남 소재 TV드라마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
  - 충남의 브랜드 가치 제고방안을 수립, 연차별로 지속 추진

- SNS(페이스북, 웨이보 등), 방송 활용, 충남의 투자여건 등 홍보 강화  
→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강화

#### ⑪ 해외 현지 투자유치센터 운영

- 우선 상하이 사무소를 對충남 투자유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
  - 현황 : 도내 수출기업 지원, 중국 관광객·유학생 유치 추진
  - 개선 : • 사무실 공간을 개조, 충남 홍보전시관, 투자상담실 등 설치
    - 아시아(중국) 시장을 겨냥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 추진
- 장기적으로 동남아 지역에 현지 투자유치 센터 확대 운영  
→ 현지 투자유치센터 운영, 對충남 투자고객을 위한 편의 제공

#### ⑫ 충남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

- 방한 외래 관광객 1,200만명 시대 도래 등 국내·외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중·장기적인 관광전략 필요
  - 백제문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일본관광객 유치 확대
  - 한류문화 확산에 따른 동남아관광객 위한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
- 중국이 방한 1위 국가로 부상(613만명)
  -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'선택과 집중' 관광마케팅 시행
  - 중국관광객 트렌드를 고려한 관광 수익 확대 방안 마련
    - \* 힐링관광 등 상품 개발, 전용 쇼핑센터 운영 등 관광수익 증대
    - \* 중국 애국주의 연결된 마케팅(산업·애국주의 패키지), 수학여행 유치
-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마련, 충남관광 활성화

#### ⑬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

- 중국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필요
  - 서산 대산항 ↔ 중국 룡옌항 간 국제여객선 취항예정('16년)
- 호텔, 테마파크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
  -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호텔 건립추진 4개소(천안, 아산, 서산, 당진)
  - 태안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으로 복합레저 도시 조성
  - 서해중부권 '해양 레포츠' 산업 육성, 금강활용 문화·생태관광 콘텐츠 개발
  - 대산 '국제 여객터미널' 및 '관광호텔' 유치, 관광 접근성 제고
- 해외 관광객 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구축, '머무는 관광' 여건 마련